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

박 경 애**

도시화 및 산업화는 가족의 애정 기능 증대, 친족관계 약화, 공사영역분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취업기회 증가, 부부관계의 평등성 추구 등을 통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혼인·이혼신고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1995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성별, 연령별, 시도별,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비교하였다. 이혼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연령별이혼율, 연령표준화이혼율을 전체인구와 유배우인구를 대상으로 각각 산출하였고, 각종 이혼력 지표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1970년~1995년 동안 이혼율이 3배 증가하였으며, 1995년 현재 유배우인구 천 명당 3.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동안 24세 이하 연령층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전 연령층에 걸쳐 빠른 속도로 이혼율이 증가하였는데,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상대적 이혼율 증가 정도가 더 빨랐다. 시도별 이혼율은 전연령층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도가 높았고, 강원도와 전라북도 25~34세 연령층의 이혼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 이혼율이 남자는 초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남자는 대졸 이상 집단, 여자는 무학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핵심단어 : 성별 이혼율, 연령별 이혼율, 교육수준별 이혼율, 시도별 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 본 연구는 1998년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공동 연구의 일부임.

** 통계청 인구분석과 사무관.

I . 문제제기

이혼자가 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변화하면서 이혼후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혼자들은 여전히 소수집단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혼상태에 있는 남녀 모두 거의 모든 질환 및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에서 유배우자보다 사망률이 높고, 기대여명이 짧은 점이 이혼자들이 겪게되는 총체적 고통을 보여준다 (박경애, 1999; 천성수, 1999; Hu and Goldman, 1990; 石川晃, 1996). 이혼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보다 이혼이 흔한 서구 사회에서조차 이혼자의 자녀들 역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Biblarz and Raftery, 1993), 불안정한 결혼을 하는 (McLanahan and Bumpass, 1988)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이혼의 원인 규명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혼율은 가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에서 이혼수준 비교를 위하여 이혼건수를 비교하는 방법,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대비하는 방법, 인구구조를 감안한 이혼건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방법이 되며, 이혼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증가라는 논지에 맞게 된다. 문제는 이혼 측정을 위해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혼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된다. 이혼수준을 언급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는 물론 학술지 논문에서조차 특정 연도에 발생하는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대비해서 혼인 ○쌍에 이혼 ○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발생 추정이혼건수 68,005건을, 1995년 발생 추정혼인건수 413,040건으로 나누어 혼인 6쌍 중 1쌍이 이혼한다고 표현한다. 1998년의 경우 혼인 366,646건, 이혼 123,731건을 대비하여 혼인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고 표현하여 이혼의 대중성을 과대 선전함으로써 이혼을 부추기는 잠재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이혼확률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의미로 과대 포장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혼건수와 혼인건수를 대비하는 방법은 인구의 연령구조가 일정하고, 매년 같은

비율로 혼인이 이루어진다면, 이혼확률이나 이혼율의 증감을 의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인구의 연령구조도 다르고 혼인율 및 혼인건수가 매년 달라지는 상황에서 특정 연도에 발생한 혼인과 이혼을 대비하는 이혼력 지표는 오용되기 쉽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혼인건수 역시 혼인발생 당해연도 신고율이 저조한 신고자료로 추정을 하고 있고, 동성동본 혼인 또는 미신고 호적정리 등이 특정 연도에 집중됨에 따라 혼인 신고건수 및 추정건수가 연도별로 영향을 받고 있어 특정 연도의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혼력 지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혼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 원인 관련 연구 결과가 누적되고 있다. 거시적 접근으로 이태영 (1987)과 변화순 (1987)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두 연구 모두 재판이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시적 접근은 사례연구나 소수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전국 규모 표본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혼연구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서문희, 1993; 이현송, 1997) 인과관계 설정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무엇보다도 이혼 자료의 특수성 및 한계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이 연구 역시 기존 연구가 경험한 한계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연구는 다양한 분석 단위 및 방법을 동원한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접근을 필요로 하고, 일부 이혼자가 아닌 이혼자 전체 현실을 고찰할 때 일반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이혼신고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이혼신고 내용은 제한되어 있어 분석 내용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혼신고가 통계자료로써 누적되기 시작한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이혼자의 성, 연령, 시도(주소지)별 및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집중 분석하여 이혼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초자료의 특징 및 한계점을 소개함으로써 이혼통계의 올바른 사용을 돋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산업화와 함께 20세기 들어 각국의 이혼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가 이혼을 부추기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한남제, 1991; Goode, 1993), 이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¹⁾ 도시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시카고학파의 워스 (Wirth, 1938)를 들 수 있는데, 도시 인구의 크기, 밀도 및 이질성이 인간관계의 비인간화, 사회이동의 증가, 불안정성의 증가, 친족관계의 약화, 가족의 중요성 약화, 사회통합 약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도시생활이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워스의 생각은 기술, 기계, 교통 등의 물질적 문화의 변천은 가치, 이념 등의 적응 문화 변화에 영향을 주어, 물질적 문화와 적응 문화는 부적응을 일으킨다는 문화지체 (cultural lag) 가설로 이어진다 (Ogburn and Nimkoff, 1955). 오그번은 근대적 기술의 발달이 가족의 경제, 교육, 오락,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근대화 과정의 문화지체 결과로서 이혼율 증가, 가족크기의 감소, 남편과 아버지의 권한 약화, 혼외정사, 부인의 경제활동, 가족성원의 개인주의 증대, 가족의 보호기능 국가로 이양, 결혼과 가족에서 종교의 영향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족을 물질문명의 수동적 반응체로 본 점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

구조기능론 (Structural Functionalism)은 남편의 경제적 역할, 부인의 정서적 역할이 상호 보완적이고, 고립된 핵가족이 도시화된 산업사회에 적합한 기능을 하며, 가족의 교육, 정치, 경제, 종교적 기능은 약화되고, 가족의 양육 및 애정 기능이 강화됨을 강조함으로써 (Parsons and Bales, 1955), 가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자리

1)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개념은 일반적으로 도시성(urbanism), 산업주의(industrialism), 근대성(modernity)과 구분이 되는데, 도시화(urbanization)란 도시인구의 상대적 증가라는 인구과정을 지칭하고, 산업화(industrialization)란 생산수단의 기계화 또는 공업부문의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근대화(modernization)란 산업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 인간주의, 진보 등을 추구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는 각 개념이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염밀히 구분하기 힘들고, 구분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혼 및 가족 관련 문헌에서는 각 개념이 상호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각 개념을 면밀히 구분짓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잡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근대화이론과 연결되면서 근대화가 가족의 경제기능을 축소시키고, 가정 밖에서 직업을 추구하도록 하며, 가족의 성적·정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 구드 (Goode, 1965)는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경제적 향상, 부부 중심가족, 평등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족이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화해가면서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 개인복리의 강조, 부부관계 중요성 증대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거도 (Berger et al., 1973) 가족의 애정 기능이 강화, 전문화된다는 관점을 공유한다. 근대화로 인한 기술발달은 직업세계와 사적 생활세계를 분리시켰고, 개인은 자신을 이중적으로 경험하여 직업세계에서는 기능을, 가족을 통해서는 사적 만족을 추구하도록 하여, 결혼 및 가족을 통해서 사적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경우 혼외정사 등 다른 사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시각은 핵가족을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다양한 가족유형을 간과하며, 성별 역할 분담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내 성별 갈등측면이나 가부장제적 성격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여권론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며, 가족원간의 미시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상호작용론이나 교환론의 도전을 받게 된다.

산업화 및 도시화와 더불어 1970년~1995년 동안 한국의 가족도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표 1>에 제시된 지표가 직·간접적으로 말해주듯,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 가족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산업사회의 지리적 및 사회적 이동성 증대 및 여성취업의 증가 현상으로 인하여 맞벌이 주말부부가 되거나, 맞벌이가 아닐지라도 자녀교육을 위해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출산기간 및 양육기간의 감소,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가 여성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력은 부부의 평등관계를 추구하도록 한다. 가족의 세대별 구성의 단순화 및 수명의 연장으로 가족 주기상 부부만의 생활 기간이 연장되고, 가족이 부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애정 (정서적) 기능 강화로 인한 부부간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

또 한편으로, 친족관계는 약화되고, 처가와의 관계가 전통사회에서보다 돈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부계중심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보여주듯 가족의 연속성에 대한 강조와 소자녀화 가치관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 가족원수의 감소 및 가족구성의 단순화로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부담으로 인한 전통적 여성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가

〈표 1〉 가구 및 가족 관련 주요 지표

지 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평균가구원수 (명)	5.2	5.2	4.6	4.1	3.8	3.3
일반가구중 1인가구 구성비 (%)	-	-	4.8	6.9	9.0	12.7
핵가족 비율 (%)	71.5	71.5	74.0	75.3	76.0	79.8
확대가족비율 (%)	18.8	18.8	11.2	10.7	10.3	9.1
남자 평균 초혼 연령 (세)	26.7	26.7	26.4	27.0	27.9	28.5
여자 평균 초혼 연령 (세)	22.6	22.6	23.2	24.1	24.9	25.4
합계출산율	4.5	4.5	2.8	1.7	1.6	1.7
남자 출생시 기대여명 (세)	58.67	60.19	61.78	64.45	67.29	69.57
여자 출생시 기대여명 (세)	65.57	67.91	70.04	72.82	75.51	77.41
출생성비	109.5	109.5	105.3	109.4	116.5	113.2
여성취업자중 유배우여성 취업자 구성비 (%)	-	-	60.4	61.7	62.8	62.4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	-	-	6.6	7.6	8.6	9.4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교육비 지출율 (%)	7.6	7.6	6.3	7.8	8.4	10.1
노인부양비	5.7	5.7	6.1	6.5	7.4	8.3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1971~97년 생명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9년
한국의 사회지표

족은 구조와 기능, 가족관계 면에서 문화지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이 이혼수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혼인·이혼 통계는 혼인·이혼 사건 발생 시점과 사건 신고 시점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나 인구동태신고 자료에서 법적 사실보다는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연구목적도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발생연도 기준으로 혼인력을 살펴보자 한다.²⁾ 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 산출 대상은 협의나 재판으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혼인·

이혼신고시 인구동태통계 (vital statistics) 관련 내용은 사실주의를 원칙으로 신고서 작성률 요구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남녀 결합의 해체를 제외한 모든 사실혼 성립 및 해소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실혼 상태로서 생활하다가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별거나 유기 등 사실적 이혼 형태를 지속하다가 이혼을 늦게 신고할 경우 통계에서 실제로 집계하는 결혼연령은 사실혼적 관계가 성립된 날짜, 사실적 이혼 상태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혼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발생연도 기준으로 혼인·이혼 통계 작성 시 사건발생 당해연도에 신고되지 아니하는 건수는 과거의 신고행태를 근거로 향후 10년 동안 자연신고될 부분을 추정하여 각종 이혼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통계청, 1999a), 통계 작성 시점에 따라 이혼건수는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1995년 통계를 1996년에 작성시 1995년에 이혼이 발생하였으나 1995년에 신고되지 아니한 이혼신고는 2005년까지 10년간 자연신고될 부분을 감안하여 이혼건수를 추정한다. 1995년 통계를 2000년에 작성할 경우에는 2000년까지 신고된 실적치와 2005년까지 5년간 자연신고될 부분을 합해서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통계 작성 시점에 따라 이혼건수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실적치가 많이 누적될수록 통계는 정확해지지만, 시의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혼율 이외의 통계치 즉 특성별 이혼구성비는 자연신고분에 대한 추정없이 신고된 누적건수만을 대상으로 계산된 수치이므로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를 활용시 총발생추정건수의 약 80%를 대상으로 통계가 집계된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혼율 추정치 역시 특정 연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1997년~1998년 동안의 IMF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이혼이 급증하였고, 서류상 이혼도 있어서 이혼율 정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자료인 1998년 발생 이혼 자료 대신에 1995년 발생 이혼 자료를 사용하면 4년간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대부분의 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편의성 (bias)이 감소되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
- 2) 국민의 신고에 의해 작성되는 혼인·이혼통계는 사건의 실제 발생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어야 하나 혼인·이혼 사건 자체는 신고가 되어야만 법적 사실로 성립되기 때문에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도 한다. 발생연도 기준으로 통계 작성시 혼인·이혼 발생 당해연도 신고율이 약 80% 수준이어서 발생연도 기준 혼인율, 이혼율을 추정해야만 과거연도와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데, 저조한 당년신고율이 추정치 작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신고연도로 집계시 혼인율, 이혼율 추정 어려움은 없어지지만, 실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있는 이점이 있다.

이혼신고에는 성, 연령, 이혼자의 주소지, 결혼년월일, 이혼년월일, 교육수준, 이혼사유 항목이 있고, 최근 연도에 한해서만 이혼종류(협의/재판), 20세미만 자녀수 자료가 있는데, 이혼사유는 항목간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제한된 신고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1995년 동안의 이혼율 추이를 살펴보고, 1995년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수준별 및 시도별 이혼율에 나타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유배우이혼율, 연령별 이혼율 및 연령표준화 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혼건수는 이혼발생 후 10년 동안 지연신고될 것을 감안한 추정건수를, 10년이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누적된 신고건수를 사용하였다. 연령별 이혼율을 계산할 때 연령을 5세 연령층으로 범주화했으며, 각종 미상건수는 어느 경우에나 1% 미만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5~19세의 경우에는 혼인·이혼자가 극소수로 통계 수치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데, 1995년의 경우 이혼 남녀가 각각 15명, 156명으로 전체 남녀 이혼자의 각각 0.02%, 0.24%에 불과하여 15~24세 연령층으로 통합하였고, 노년층의 경우에도 각 연령층별 이혼자가 적어서 60세 이상 범주로 통합하여 처리하였다. 각종 연령표준화이혼율은 1995년 성별 전국 인구를 표준인구로 직접방법에 의해 계산하였다 (Shyrock et al., 1976).

분모인 인구는 1992년까지는 추계연양인구를 (통계청, 1996) 사용하였고, 1993년부터는 주민등록에 의한 연양인구를 (registered mid-year population)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유배우이혼율 및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별 인구를 추계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각 특성별 인구구성비를 1992년까지는 추계연양인구에, 1993년 이후는 주민등록연양인구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EMP_{ij} = PCP_{ij} \times EMP_i \text{ (or } RMP_i)$$

EMP_{ij} : i 연령계급의 j 특성별 (혼인상태 또는 교육수준) 추계연양인구

PCP_{ij} : i 연령계급의 j 특성별 (혼인상태 또는 교육수준) 센서스인구비율

EMP_i : i 연령계급의 추계연양인구

RMP_i : i 연령계급의 주민등록연양인구

$$RMP_{i \cdot t} = RP_{i \cdot (t-1)} \times \left(\frac{RP_{i \cdot t}}{RP_{i \cdot (t-1)}} \right)^{\frac{1}{2}}$$

$RMP_{i \cdot t}$: i 연령계급의 t 년 주민등록연양인구

$RP_{i \cdot t}$: i 연령계급의 t 년 주민등록인구

$RP_{i \cdot (t-1)}$: i 연령계급의 $t-1$ 년 주민등록인구

IV. 분석결과

1. 이혼력 변화 추이

발생년도 기준 이혼건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96년 79,957건, 1997년 93,333건, 1998년에는 123,731건으로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였다 (통계청, 1999a). 이혼건수와 혼인건수를 대비하여 이혼수준을 파악하려고 할 때, 혼인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혼인건수만을 포함하며, 이혼 역시 당해년도에 발생한 건수로서 이혼이 발생 가능한 집단은 당해년도에 혼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혼인한 사람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혼인 0쌍에 이혼 0쌍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혼인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유배우상태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야만 정확한 이혼수준을 언급하는 지표가 된다. 혼인상태별 인구를 추계하여 유배우이혼율을 계산하여 보면, 1995년 현재 부부 155쌍에 이혼 1쌍이 발생하고, 유배우인구 1인당 1995년에 이혼한 확률은 0.65%가 된다.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은 인구의 연령구조 특히 15세 미만 인구규모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사용하고, 이혼건수를 분자로 한 일반 이혼율 (General Divorce Rate)을 보면 1985년부터 1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이혼 1쌍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이혼율 역시 인구의 연령구조 뿐만 아니라 이혼 발생과 상관이 없는 미혼인구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실제로 이혼이 가능한 유배우상태인 사람들을 분모로 계산한 유배유이혼율 (Divorce Rates for Married Persons)이 기간접근 (period approach) 지표 중에서 실제 이혼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준다. 유배우이혼율을 보면 1970년 유배우인구 천 명당 이혼이 1건 발생

〈표 2〉 각종 이혼력 지표, 1970~1995

지 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발생연도별 이혼건수	11615	16179	22980	38429	45022	68078
조이혼율 (인구 천 명당)	0.4	0.5	0.6	0.9	1.0	1.5
일반이혼율 (15세 이상, 천 명당)	0.6	0.7	0.9	1.3	1.4	1.9
유배우이혼율 (15세 이상, 천 명당)	1.1	1.3	1.6	2.3	2.4	3.2
부부 ○쌍당 이혼1쌍 (15세 이상)	471	380	311	216	209	155
유배우인구 1인당 이혼확률 (15세 이상, %)	0.21	0.26	0.32	0.46	0.49	0.65
이혼인구비율 (15세 이상, %)	0.66	0.50	0.49	0.59	0.77	1.07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3건 이상 발생하였고, 유배우인구 1인당 이혼확률로 계산해 보면 1970년 한해 0.21%에서, 1995년 0.65%로 3배 증가하였다.

2. 이혼율 추이

(1) 성 및 연령별 이혼율

남자는 1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1970년 1.3명에서 1995년 4.0명이 이혼을 한 반면에, 여성은 1970년 1.2명에서 1995년 3.9명이 이혼을 하여, 1970년부터 1995년 까지 25년 사이에 이혼율이 3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인구를 기준으로 연령을 표준화시켜 이혼율을 계산해 보면 1970년~1995년 동안 남자는 1.4에서 4.0으로, 여자는 1.3에서 3.9로 변화를 보여 연령을 표준화시켜 보아도 남녀 모두 3배 이상 이혼율이 증가하였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상대적 이혼율 증가 정도가 약간 큼을 알 수 있다(표 3). 남녀가 한 쌍이 되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로 이혼율이 다른 이유는 분자인 이혼건수가 같아도 분모인 남녀 인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 및 연령별 이혼율에서는 부부간 연령별 결합형태가 부부마다 똑같지 않고 달라지기 때문에 남녀의 이혼율 차이는 더욱 커진다.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1980년대까지 남자는 30대 초반에, 여자는 20대 후반에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주다가, 혼인연령 증가와 함께 1990년부터 남자는 30대 후반, 여자는 3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며, 1995년 남자는 35~39세 인구

〈표 3〉 성 및 연령별 이혼율 및 이혼률의 증가율, 1970~1995

연령	남자 (%)						70~95 증가율 (%)	여자 (%)						70~95 증가율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5-24	0.1	0.2	0.2	0.4	0.2	0.3	104.9	0.8	0.9	1.0	1.5	1.1	1.2	62.8
25-29	2.1	2.5	2.8	4.0	3.5	3.5	68.6	3.4	3.9	4.7	6.3	6.2	6.6	92.9
30-34	3.1	4.2	4.9	6.3	6.2	6.9	120.0	2.6	3.7	4.7	6.2	6.5	8.5	229.7
35-39	2.3	3.1	4.5	6.1	6.2	8.3	258.0	1.6	2.1	3.1	4.3	5.0	8.0	329.5
40-44	1.9	2.3	2.9	4.4	4.9	7.8	305.1	0.9	1.3	1.8	2.7	3.0	5.6	529.9
45-49	1.4	1.7	1.9	2.6	3.3	5.6	312.6	0.5	0.7	0.9	1.3	1.8	3.2	525.8
50-54	0.8	1.2	1.4	1.4	1.7	3.4	308.6	0.3	0.4	0.5	0.7	0.8	1.6	535.9
55-59	0.5	0.7	0.9	1.2	1.1	1.7	219.8	0.1	0.2	0.3	0.4	0.4	0.7	615.2
60+	0.3	0.4	0.5	0.7	0.6	0.8	210.0	0.0	0.0	0.1	0.1	0.1	0.2	421.3
일반이혼율	1.3	1.5	1.9	2.7	2.9	4.0	210.3	1.2	1.5	1.9	2.7	2.9	3.9	215.3
표준화이혼율	1.4	1.8	2.2	3.0	3.0	4.0	186.2	1.3	1.7	2.1	2.9	2.9	3.9	203.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주 : 1) 증가율 = ((1995이혼율 - 1970이혼율) / 1970이혼율) × 100

2) 표준화이혼율은 1995년 성별 주민등록 연장인구 기준임.

천 명당 8.3명이, 여자는 30~34세 인구 천 명당 8.5명이 이혼을 하여 이혼한 사람은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음을 보여 준다. 1970년부터 1995년 동안의 이혼율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일부 연령층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연령별로는 20대까지 100% 내외의 상대적 증가율을,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보다 급격한 상대적 증가율을 보인다. 남자는 40대 및 50대 초반에 300%이상의 상대적 증가율을, 여자는 40~50대에 500~600%의 상대적 증가율을 나타내서 1970~1995년 동안 남자보다는 여자의 상대적인 이혼율 증가 정도가 더 크며, 남자는 40대~50대 초반, 여자는 40~50대의 이혼증가 속도가 가장 빠름을 나타내고 있다. 20대까지 이혼율의 증가 정도가 낮은 이유는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젊은 연령층의 유배우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이혼율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배우이혼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표 4〉 성·연령·교육수준별 이혼율, 1995

연령	남자 (%)					여자 (%)				
	무학	초등졸업	중등졸업	고등졸업	대학이상	무학	초등졸업	중등졸업	고등졸업	대학이상
15-24	0.4	0.1	0.2	0.2	0.3	3.1	0.4	0.7	1.2	0.4
25-29	3.1	6.0	7.4	2.9	1.4	8.8	15.7	14.3	5.0	2.2
30-34	9.8	10.5	10.9	5.9	2.8	11.7	14.5	10.2	6.1	2.9
35-39	11.2	11.5	10.2	6.8	2.9	8.1	9.0	6.7	5.9	2.9
40-44	10.8	8.1	7.4	6.4	2.8	4.7	4.3	4.0	4.8	2.5
45-49	5.0	4.6	4.6	4.9	2.5	1.5	1.9	2.5	3.4	1.8
50-54	2.2	2.0	2.8	3.3	2.0	0.8	0.9	1.5	2.1	1.3
55-59	1.0	0.9	1.4	1.8	1.1	0.3	0.4	0.8	1.1	0.8
60+	0.2	0.5	1.0	1.2	0.7	0.1	0.1	0.5	0.6	0.5
일반이혼율	1.1	2.7	3.5	3.3	2.1	0.3	2.1	3.7	3.9	2.0
표준화이혼율	4.7	5.0	5.3	3.4	1.6	4.7	6.3	5.8	3.1	1.6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주민등록인구, 이혼신고 원시자료

(2) 교육수준별 이혼율

연령층에 따라 교육수준이 다르므로, 교육수준별 연령을 표준화하여 이혼율을 비교해 본 결과 〈표 4〉 남녀 모두 대학이상 졸업 집단의 이혼율이 가장 낮고, 남자는 중등학교 졸업 집단, 여자는 초등학교 졸업 집단 이혼율이 최고점을 이루며 곡선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대학이상 졸업 집단의 이혼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지만, 이혼율이 높은 경우는 연령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5~24세 연령층에서는 남녀 모두 무학 집단이, 45세 이상 중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나머지 중간 연령층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의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남녀의 이혼율을 비교해 보면, 30대 초반까지는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남자보다 여자의 이혼율이 높은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이며,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남자의 이혼율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남자가 결혼을 여자보다 늦게 하고, 재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³⁾

3) 1995년 이혼후 재혼은 전체 혼인건수중 약 6.5%, 사별후 재혼은 전체 혼인중 1.2% 수준이다.

〈표 5〉 성·연령·시도별 이혼율, 1995

연령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자 (%)															
15-24	0.3	0.2	0.2	0.2	0.4	0.2	0.3	0.4	0.4	0.5	0.3	0.3	0.3	0.2	0.3	0.4
25-29	3.3	2.9	3.1	3.0	4.3	2.8	3.7	3.7	3.6	3.3	3.3	3.5	3.1	3.2	3.5	4.2
30-34	6.5	6.4	7.0	5.9	7.3	6.3	6.5	6.4	7.0	7.7	6.3	7.8	6.7	5.7	6.1	8.3
35-39	7.8	7.7	8.3	7.7	8.7	7.8	8.8	7.7	8.4	7.4	6.6	8.8	6.9	6.7	7.7	8.8
40-44	7.2	7.1	8.3	7.0	8.2	7.9	7.4	7.9	7.6	6.8	6.1	7.1	5.8	5.5	6.9	7.5
45-49	5.2	5.6	6.0	4.7	6.1	4.6	6.0	6.0	5.0	4.5	3.9	4.4	3.5	3.6	5.3	4.7
50-54	3.2	3.9	4.0	2.7	3.9	2.1	3.8	3.7	2.6	1.9	1.9	2.3	1.6	1.9	3.1	2.6
55-59	1.5	2.2	1.7	1.2	2.0	1.3	2.4	2.0	1.2	1.1	0.8	0.8	0.9	0.8	1.3	1.4
60+	0.7	1.1	1.0	0.6	0.7	0.8	0.8	0.9	0.6	0.5	0.4	0.5	0.4	0.4	0.7	0.8
일반이혼율	4.0	4.0	4.4	3.7	5.1	3.7	4.5	4.7	4.0	3.8	3.1	3.7	3.0	3.1	4.0	4.3
표준화이혼율	4.0	4.1	4.4	3.7	4.7	3.8	4.4	4.3	4.2	4.0	3.5	4.2	3.4	3.3	3.9	4.5
연령	여자 (%)															
15-24	1.2	1.0	1.1	0.9	1.6	1.0	1.3	1.7	1.2	1.4	1.2	1.2	0.9	1.1	1.2	1.4
25-29	6.2	5.8	6.1	5.4	7.2	5.6	6.5	6.4	7.5	7.0	6.3	7.5	6.7	5.6	6.2	7.4
30-34	8.0	7.9	8.8	7.2	9.1	8.0	8.8	7.8	8.1	8.4	7.4	9.1	7.7	6.9	7.3	9.2
35-39	7.5	7.5	8.4	7.4	8.7	7.3	7.7	7.9	7.7	7.3	5.8	7.5	6.0	5.6	7.2	7.9
40-44	5.2	5.7	5.9	4.7	6.2	4.7	5.6	6.1	4.7	4.3	4.3	4.2	3.4	3.5	4.9	4.7
45-49	3.0	3.6	3.7	2.4	3.8	2.0	3.8	3.4	2.3	1.6	1.9	2.4	1.6	1.7	2.6	3.1
50-54	1.5	2.1	1.7	1.3	1.7	1.2	2.0	1.7	1.1	0.9	1.1	0.7	0.7	0.6	1.4	1.5
55-59	0.6	0.9	0.8	0.5	1.0	0.6	1.3	0.80	0.5	0.4	0.3	0.5	0.3	0.3	0.4	0.4
60+	0.2	0.3	0.2	0.1	0.1	0.1	0.1	2	0.2	0.2	0.1	0.1	0.1	0.1	0.1	0.2
일반이혼율	4.3	4.3	4.6	3.9	5.5	3.9	4.8	5.0	4.1	4.0	3.3	3.8	3.0	3.1	4.1	4.5
표준화이혼율	4.3	4.3	4.6	3.8	5.0	3.9	4.6	4.6	4.4	4.2	3.8	4.4	3.7	3.4	4.0	4.7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3) 시도별 이혼율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시도별 조이혼율을 보면, 광주를 제외한 대도시는 1970년부터 일관되게 전국보다 조이혼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타시도에서는 전국보다 조이혼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통계청, 1991). 1995년의 15세 이상 일반이혼율을 보면,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도가 전국보다 이혼율이 높고, 대구, 광주, 충남 등은 이혼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을 표준화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표 5).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 지역의 각 연령층별 이혼율은 전국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대구 및 경북은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전국보다 이혼율이 낮다. 전국보다 연령표준화 이혼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 서울, 전북, 강원과, 약간 낮게 나타난 충북 지역의 이혼율이 연령별로 이혼 유형이 다

르다. 서울의 경우, 45세 이후 연령층에서는 전국보다 이혼율이 높고, 45세 미만에서는 낮으나, 강원, 충북, 전북에서는 34세 이하 연령층의 이혼율은 전국보다 높고,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전국보다 낮으므로, 유배우이혼율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유배우이혼율 추이

(1) 성 및 연령별 유배우이혼율

이혼 가능한 유배우인구가 연령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별 이혼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배우이혼율을 살펴보아야 한다(표 6). 15세 이상 일반 유배우이혼율이나 연령표준화 유배우이혼율을 볼 때 남자는 인구 천 명당 1970년 2.0명에서 1995년 6.5명이, 여자는 각각 1.8명과 6.5명이 이혼율 하여 남녀 모두 3배 이상 이혼율이 증가하였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상대적 이혼율 증가 정도가 크다. 연령별로 볼 때, 남녀 모두 1995년 15~24세 유배우인구 천 명당 남자는 14.3명, 여자는 13.4명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아져 60세 이상에서는 천 명당 1명 이하이다. 1970년부터 1995년 동안의 상대적인 이혼율의 증가는 남자는 40대~50대 초반, 여자는 40~50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연령별 유배우이혼율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주혼인연령⁴⁾을 벗어난 24세 이하에 서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 25세 이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율은 낮아지는 대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불안정한 혼인은 해체되고 적응한 혼인만이 잔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적응력 또한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989년의 가족기능조사 분석결과에서도 부인의 초혼연령이 20세 미만일 경우 이혼율이 높고, 남편의 초혼연령은 35세 이상이거나 20세 미만일 경우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1993). 1991년 전국 출산력조사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 이혼분석에서도 혼인적령기에서 벗어나서 결혼할 경우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짓고 있다(이현술, 1997).

4) 평균초혼연령이 1970년 남자 26.7세, 여자 22.6에서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 남자 29.0세, 여자 26.2세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a).

〈표 6〉 성 및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및 증가율, 1970~1995

연령	남자 (%)						70~95 증가율 (%)	여자 (%)						70~95 증가율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5-24	4.3	5.7	6.5	12.9	12.9	14.3	234.9	3.7	5.0	5.7	10.7	11.4	13.4	257.3
25-29	3.7	4.7	5.1	8.2	8.2	9.9	167.2	3.9	4.5	5.5	7.8	8.1	9.4	144.0
30-34	3.4	4.6	5.3	7.1	7.2	8.7	155.8	2.7	3.9	5.0	6.7	7.1	9.3	241.2
35-39	2.4	3.2	4.7	6.4	6.6	9.1	282.4	1.8	2.3	3.3	4.6	5.4	8.7	391.0
40-44	2.0	2.3	2.9	4.5	5.2	8.3	320.9	1.1	1.4	2.0	3.0	3.3	6.2	493.2
45-49	1.4	1.7	2.0	2.7	3.5	5.9	323.3	0.7	0.9	1.1	1.5	2.1	3.7	456.7
50-54	0.9	1.2	1.4	1.5	1.8	3.6	313.3	0.4	0.5	0.7	0.9	1.0	2.0	427.2
55-59	0.6	0.8	1.0	1.2	1.1	1.8	216.4	0.2	0.3	0.5	0.6	0.7	1.0	454.6
60+	0.3	0.5	0.6	0.8	0.7	0.9	179.5	0.1	0.1	0.2	0.3	0.3	0.5	311.7
일반이혼율	2.1	2.7	3.3	4.7	4.8	6.5	206.9	2.1	2.6	3.3	4.7	4.8	6.5	209.6
표준화이혼율	2.0	2.5	3.2	4.4	4.7	6.5	231.9	1.8	2.3	3.0	4.2	4.6	6.5	268.9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연보, 장래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주 : 1) 증가율 = ((1995이혼율 - 1970이혼율) / 1970이혼율) × 100

2) 표준화이혼율은 1995년 성별 주민등록 연인구 기준임.

(2) 교육수준별 유배우이혼율

교육수준에 따라 유배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배우이혼율을 산출하여 연령을 표준화시켜 볼 때, 이혼율이 남자는 대졸 집단에서 가장 낮고, 초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나, 여자는 무학집단에서 가장 낮고, 고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7). 연령층별로 볼 경우에도 이혼수가 적은 15~24세와 60세이상 연령층 남자를 제외한 남녀 모두 전연령층에서, 유배우이혼율이 남자는 초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고, 여자는 고졸 집단에서 가장 높다. 이 결과는 1991년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여성은 대졸여성보다 이혼으로 끝날 확률이 33.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유형이다(이현송, 1997). 뿐만 아니라, 1980년과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할 때, 남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상태의 비율이 낮아지고, 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이혼상태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곡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도 유사한 유형이다(오선주, 1995).

각 연령층 및 교육수준 집단별로 남녀 유배우이혼율을 비교해 볼 때, 45세 이후에서

〈표 7〉 성·연령·교육수준별 유배우 이혼율, 1995

연령	남자 (%)					여자 (%)				
	무학	초등졸업	중등졸업	고등졸업	대졸이상	무학	초등졸업	중등졸업	고등졸업	대졸이상
15-24	0.6	0.1	0.2	0.3	0.1	0.4	0.2	0.8	1.3	0.4
25-29	5.3	11.5	9.7	3.5	1.0	0.5	0.8	3.0	9.2	10.6
30-34	16.4	20.9	16.2	6.6	2.2	0.4	1.7	5.9	16.8	13.4
35-39	12.8	19.4	13.2	7.2	2.3	0.3	2.1	9.5	17.8	27.5
40-44	9.0	12.6	9.0	6.5	2.1	0.1	2.6	17.3	40.1	20.2
45-49	3.7	6.2	4.8	4.6	2.3	1.5	1.9	2.5	3.4	1.8
50-54	2.2	2.9	2.9	2.8	1.7	0.8	0.9	1.5	2.1	1.8
55-59	1.0	1.4	1.4	1.4	0.9	0.3	0.4	0.8	1.1	0.8
60+	0.4	0.6	0.8	0.9	0.5	0.1	0.1	0.5	0.6	0.5
일반이혼율	1.5	3.6	3.7	3.5	1.6	0.2	1.2	3.6	6.4	4.2
표준화이혼율	5.8	8.7	6.7	3.5	1.3	0.4	1.0	4.1	9.3	8.2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주민등록인구, 이혼신고 자료

는 남자의 이혼율이 여자의 이혼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40대 초반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이하 집단, 30대까지는 중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 및 교육수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배우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시도별 유배우이혼율

15세 이상의 성별 유배우이혼율만 살펴보면, 남녀 모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가 전국보다 높았고, 유배우인구의 연령을 표준화시켜도 마찬가지이다(표 8). 유배우인구의 연령을 표준화시켜 보면 전북과 강원도의 남자는 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여자는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령별 유배우이혼율을 살펴보았다. 연령표준화 유배우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연령별 유배우이혼율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높고, 낮은 지역에서는 낮은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시도의 유배우이혼율을 전국의 유배우이혼율에 대비한 비를 산출해 보면 전북과 강원도에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유배우이혼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이하 주要害인연령층에서는 이혼율이 전국보다 훨씬 높고,⁵⁾ 서울, 부산, 경기도에

〈표 8〉 성·연령·시도별 유배우 이혼율

연령	남자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24	14.1	14.3	14.7	9.5	14.7	10.4	16.2	14.7	14.8	18.8	13.7	15.7	13.1	12.4	13.4	14.4
25-29	9.4	9.9	10.1	8.6	10.7	7.6	9.8	9.3	9.9	8.4	8.7	10.0	8.0	8.3	8.9	11.8
30-34	8.2	8.5	9.1	7.3	9.0	7.6	7.9	7.8	9.1	9.5	8.0	9.8	8.4	6.9	7.2	10.7
35-39	8.6	8.6	9.3	8.3	9.5	8.3	9.5	8.4	9.5	8.1	7.4	9.8	7.7	7.2	8.3	9.7
40-44	7.7	7.5	8.9	7.4	8.8	8.2	7.8	8.4	8.2	7.3	6.6	7.6	6.3	5.9	7.3	8.1
45-49	5.5	5.9	6.4	4.9	6.4	4.8	6.3	6.3	5.3	4.8	4.1	4.7	3.7	3.8	5.7	5.1
50-54	5.3	4.1	4.3	2.9	4.1	2.2	4.0	3.9	2.8	2.0	2.0	2.5	1.7	2.0	3.3	2.8
55-59	1.6	2.3	1.8	1.3	2.1	1.4	2.6	2.1	1.3	1.2	0.9	0.9	0.9	0.8	1.4	1.4
60+	0.8	1.2	1.2	0.7	0.8	0.9	1.0	1.1	0.7	0.6	0.5	0.6	0.4	0.7	0.7	0.9
일반이혼율	6.6	7.0	7.4	6.2	8.0	6.3	7.5	7.2	6.4	6.1	5.0	6.2	4.7	4.8	6.3	7.3
표준화이혼율	6.6	6.9	7.4	6.0	7.4	6.1	7.1	6.8	6.9	6.3	5.7	6.9	5.6	4.6	6.2	7.4
연령	여자 (%)															
15-24	12.9	13.9	15.5	11.9	13.6	11.5	14.6	13.9	12.0	13.4	11.0	12.8	8.4	10.8	10.8	15.3
25-29	8.9	9.7	9.6	7.9	9.5	7.9	9.1	8.4	10.2	9.4	8.3	10.4	8.6	7.4	7.9	11.6
30-34	8.7	9.1	9.7	7.9	9.8	8.6	9.6	8.4	8.8	9.1	7.9	9.8	8.2	7.4	7.8	10.3
35-39	8.1	8.4	9.1	8.0	9.4	7.8	8.3	8.5	8.4	7.8	6.2	8.1	6.4	5.9	7.7	8.7
40-44	5.8	6.3	6.7	5.3	6.9	5.2	6.2	6.8	5.2	4.8	4.8	4.7	3.7	3.9	5.4	5.4
45-49	3.4	4.1	4.3	2.8	4.4	2.3	4.5	3.9	2.7	1.9	2.2	2.7	1.8	1.9	3.0	3.7
50-54	1.9	2.5	2.2	1.6	2.2	1.5	2.5	2.2	1.4	1.1	1.3	0.9	0.9	0.7	1.8	2.0
55-59	0.9	1.3	1.1	0.8	1.5	0.8	1.8	1.2	0.7	0.5	0.4	0.6	0.4	0.5	0.6	0.6
60+	0.4	0.7	0.7	0.4	0.4	0.4	0.3	0.5	0.5	0.4	0.3	0.3	0.2	0.2	0.3	0.6
일반이혼율	7.1	7.5	7.9	6.6	8.5	6.7	8.0	7.7	6.7	6.6	5.4	6.6	5.1	5.1	6.6	8.1
표준화이혼율	7.1	7.6	8.0	6.5	8.0	6.5	7.7	7.3	7.1	6.8	5.9	7.2	5.7	5.4	6.4	8.1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서는 젊은층에 비해 45세 이상 연령층의 유배우이혼율이 전국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연령별 이혼율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연령별 이혼율이 서로 상쇄 효과가 있어 연령표준화 이혼율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연령표준화 이혼율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5) 충북 남자 25~29세를 제외하고 주혼인연령층의 이혼율이 전국보다 높다. 연령을 5세로 범주화 하기 때문에 25~29세 이혼자가 양쪽 연령 범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 및 연령보고 오류 가능성 을 고려해 본다면, 전북과 강원도에서 나타난 연령별 이혼율 유형이 충북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 9〉 성·연령·시도별 유배우 이혼율의 전국에 대한 비

연령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 자 (%)															
15-24	100	101	104	67	104	74	115	104	105	133	97	111	93	88	95	102
25-29	100	105	108	92	115	81	105	99	105	90	93	107	86	89	95	126
30-34	100	104	111	89	110	92	96	95	111	116	98	120	103	84	88	130
35-39	100	101	108	97	111	97	111	98	111	95	86	114	90	85	97	113
40-44	100	98	116	96	114	107	101	108	106	94	85	99	81	76	95	105
45-49	100	106	116	89	116	87	114	114	96	86	75	85	68	69	102	91
50-54	100	121	128	85	123	65	119	118	84	60	60	74	52	60	98	84
55-59	100	141	112	77	131	84	157	129	77	74	54	52	55	50	84	88
60+	100	148	143	84	103	110	117	128	89	68	61	73	54	82	91	115
일반이혼율	100	105	112	94	121	95	113	110	98	92	76	93	71	73	95	111
표준화이혼율	100	105	113	92	113	93	107	103	105	96	86	105	85	70	94	113
연령	여 자 (%)															
15-24	100	108	120	92	105	89	114	108	94	104	86	99	65	84	84	119
25-29	100	109	108	89	106	88	102	95	114	106	93	117	97	82	88	130
30-34	100	104	112	91	112	99	110	97	100	104	91	112	94	85	89	118
35-39	100	103	112	99	116	96	102	104	103	96	76	99	78	72	95	107
40-44	100	109	115	90	118	89	107	116	90	82	82	80	63	67	93	92
45-49	100	120	126	82	127	68	129	114	79	55	64	80	52	56	87	107
50-54	100	138	121	87	120	83	137	118	76	59	72	50	48	39	95	107
55-59	100	145	127	86	165	89	204	132	77	58	43	70	40	51	68	66
60+	100	169	163	86	89	93	68	120	111	88	58	66	54	51	71	141
일반이혼율	100	106	112	93	121	95	113	109	95	93	76	93	72	73	93	115
표준화이혼율	100	108	114	92	113	92	109	103	100	96	84	102	81	76	90	114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V. 논의 및 결론

산업화에 수반된 생산수단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 및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였는데, 소규모화와 핵가족화, 애정 기능 강화, 공사 영역의 분리, 친족관계 약화, 여성의 교육증가, 여성의 취업증가, 평등성 추구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0년~1995년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혼수준 변화 정도 및 의미를 파악하고자 혼인·이혼신고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시도별,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산출하였다. 각 특성별 조이혼율, 일반이 혼율, 연령별 이혼율, 연령표준화이혼율을 성별 전체인구와 유배우인구에 대해서 각각 산출하여 각종 이혼율을 비교하였으며, 유배우이혼율이 이혼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의 연령구조가 상이한 경우 전체 집단의 이혼율을 언급하기 위해서 연령표준화 이혼율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연령표준화 이혼율은 상대적 비교성 의미만을 지니므로 연령별 이혼율을 산출할 경우 연령표준화 이혼율 해석에 주 의해야 한다. 특히 연령별 이혼율이 일관된 유형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연령표준화 이혼율은 단점을 지니게 되는 점을 (Anderson and Rosenberg, 1998) 간과해서는 안된다.

1975년~1990년 동안 한국의 이혼율은 3배 증가하였는데, 1995년 현재 유배우인구 천 명당 6.5명이 이혼을 하였고, 부부 155쌍당 1쌍이 이혼을 했으며, 이혼상태인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약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볼 때 24 세 이하의 이혼율이 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데, 85년 이후 유배우인구 천 명당 남녀 모두 10명 이상이 이혼을 했다. 혼인연령은 서구사회에서도 이혼과 일관되게 연관성이 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에 수반된 인격적인 성숙의 정도, 부부 역할에 대한 능력의 정도, 결혼상대를 선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혼전임신으로 인한 결혼 압박, 불행한 가족생활을 도피하고자 하는 이유로 결혼에 대한 준비없이 서두르게 되기 때문으로 본다 (Martin and Bumpass, 1989; 정창수, 1997). 또한 젊은층 일수록 배우자의 자유로운 선택 및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지속성보다는 개인의 복리를 우선하고, 부부중심 관계를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대안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 더욱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은 유배우남성과 유배우여성이 한쌍이 되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혼당사자 차원에서 볼 때 남녀 이혼수준은 똑같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 인구의 초혼율, 재혼율, 즉 유배우율 및 혼인연령 자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남성 전체, 여성 전체 집단의 이혼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 전체 집단이 여성 전체 집단보다 특히 30대 후반부터는 유배우이혼율이 높은데, 남성은 여성보다 혼인을 늦게 하고, 재혼율이 높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1995년 동안 남성보다 여성 집단의 상대적인 이혼율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를 통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삶에 더 많은 변화가 왔으며, 여성의 교육증가 및 취업증가로 평등한 부부관

계를 추구하는 여성이 많아진 반면, 그에 맞추어 남성 및 가족의 변화는 늦게 나타나는 문화지체 현상 때문일 것이다. 1998년 전국 규모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사유가 있어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통계청, 1999b), 빠른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규범 내 재화 및 역할수행에 남녀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율이 증가하지만, 1970년~1995년 동안 연령층별로 이혼율의 상대적인 증가 정도를 보면 남녀 모두 40~50대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며, 40~50대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혼증가율이 크다. 그 이유는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가족법 개정에 따른 이혼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 허용, 미성년 자녀의 성장 등으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과거에는 참고 지내던 중년층 여성의 이혼을 예전보다는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도별 이혼율을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서울, 부산, 경기도의 이혼율이 높아 중년층 이후의 이혼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도시 지역에 더 많이 확산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중년층 이후의 이혼율 급증은 일본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八代尙宏, 1994).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산업 구조나 노동시장의 변화에 수반하여 중년층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될수록 중년층 이후의 이혼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수준별 유배우이혼율이 남자는 초등학교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고, 대학졸업 이상 집단에서 가장 낮은 반면에, 여자는 고등학교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고, 무학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45세미만 연령층의 초등학교졸업이나 무학 집단에서는 남자의 유배우이혼율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높은 교육수준을 기대하는 가부장적 규범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에 남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여준다. 남자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여자는 낮은 집단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별 공사(公私)영역 구분 또는 경제적/정서적 역할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 및 가부장적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족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갈등을 느끼게 하고, 불행한 결혼을 인내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으로 보인다. 1880년~1990년 동안 미국사회의 이혼율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 일하는 여성이 많고, 일하지 않는 남성이 많을수록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가족내 가부장적 지위의 상실 및 여성의 자아실현 가치관 때문으로 보고 있다 (Ruggles, 1997).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가 미국보다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남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부장적 지위 상실로 연결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이혼 선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등한 부부관계가 구현되지 않는 한 이혼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시도별 이혼율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 지역의 유배우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될수록 이혼율이 높다는 정설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도시화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혼율이 반드시 높은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추후 연구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와 관련된 제 요인과 과정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 광주를 들 수 있고, 도시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이며, 도시화수준이 비슷한 지역중에서도 연령별로 이혼율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광주의 이혼율이 낮은 이유는 미시적 차원에서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 지역사회의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유교적 가족가치관 때문에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서문희, 1995), 유교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대구에서는 개개인의 가치보다는 가족 전체의 연속성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이혼에도 보수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주 역시 전남보다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사 결과 (문석남 외, 1994)를 참고해 보아도, 광주가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적인 가치관과 유교 전통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지역연구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이혼율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에 대해서는 제주사회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재석 (1977)은 제주도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를 유교적 가치체계가 육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데서 찾고 있다. 이창기(1995)는 제주도의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장남분가, 핵가족화 및 소규모 가족, 문중조직의 약화, 재산상속의 균분경향, 조상제사의 분할, 모중심적 가족구조 등 육지의 전통과는 상이한 모습을 빈약한 자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혜정(1982)은 제주도 가족을 모성중심이라거나 처우위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성의 가사나 경제활동에 여성의 역할참여가 많고,

여성의 지위가 높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높은 이혼율이 희박한 유교적 전통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제주도의 주요 생산수단이 전작(田作)농업과 어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작(田作)농업에 대한 여성의 노동력 기여와 해녀의 역할이 경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음으로 인하여 부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져오고, 여성의 강한 생활력이 이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화수준이 비교적 비슷한 시도 중에서도 시도에 따라 연령별로 이혼율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전북과 강원도 25~34세 주혼인연령층 이혼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심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가설을 제안해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이혼율이 높고, 미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 가능성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Martin and Bumpass, 1989; South and Spitz, 1986),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과 강원도 농촌지역 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수준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거시적 이혼 자료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생산수단, 가치관,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짐에 따라 남성보다는 여성의 삶에 더 많은 변화가 왔고, 향상된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증대는 이혼율을 증가시켰으며, 남성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혼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단위와 방법을 달리한 미시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석남·정근식·지병문 (1994), 『지역사회와 사회의식-광주전남지역 연구』, 문학과 지성사.
- 박경애 (1999), “한국과 일본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비교,” 『한국인구학』 22(1):37~63.
- 변화순 (1987), “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찰,” 『한국인구학회지』 10(2):1-16.
- 서문희 (1993), “부인의 이혼과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및 결혼 관련요인,” 『보건사회논집』 13(2):1-19.
- (1995), “우리나라 출생성비 불균형의 지역차이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15(2):143-173.
- 오선주 (1995), “교육수준, 직업과 이혼상태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1-13.
- 이창기 (1995),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신행철외저, 『제주사회론』, pp. 17-68.
- 이태영 (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현송 (1997), “이혼의 인구·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2(여름):69-90.
- 정창수 (1997), “이혼의 실태와 원인 및 결과로 본 한국과 미국의 가족,” 정창수·정기선·차종천,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미국가족과의 비교분석』, 집문당, pp. 271-371.
- 조혜정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 천성수 (1999), “혼인상태별 수명 관련지표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5(1) : 83-99.
- 최재석 (1977), “제주도의 이·재혼제도의 비유교적 전통,” 『진단학보』 43.
- 통계청 (1991), 『혼인·이혼통계 작성 결과』.
- (1995), 『1994년 인구동태통계연보』.
- (1996), 『장래인구추계』.
- (1997),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 (1998), 『1970~2000년 시도별 추계인구』.
- (1999a), 『1998년 인구동태통계연보』.
- (1999b), 『1998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 (1999c), 『1971~97년 생명표』.
- 한남제 (1991), “산업화와 가족해체의 증가-이혼율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편, 『현대한국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pp. 133-160.
- 石川晃 (1996), “配偶關係別 生命表: 1990年,” 『人口問題研究』 51(4):32-46.
- 八代尚宏 (1994), 『결혼경제학』, 이균譯, 한국경제신문사.

- Anderson, R.N. and H.M. Rosenberg (1998), "Age Standardization of Death Rates: Implementation of the Year 2000 Standard,"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47(3).
- Berger, Peter L., Brigitte Berger, and Hansfried Kellner (1973), *Modernization and Consciousness*, New York : Random House.
- Biblarz, T. J. and A. E. Raftery (1993), "The Effects of Family Disruption on Social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Feb): 97-109.
- Goode, W. J. (1965),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 (1993), *World Changes in Divorce Patterns*, Yale University Press.
- Hu, Yuanreng and Noreen Goldman (1990), "Mortality Differentials by Marital Statu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emography* 27(2):233-245.
- Martin, T.C. and L. L. Bumpass (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1):37-51.
- McLanahan, Sara and Larry Bumpass (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30-152.
- Ogburn, W.F. and M.F. Nimkoff (1955), *Technology and the Changing Family*, Boston: Houghton-Mifflin.
- Parsons, Talcott and R. F. Bales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The Free Press.
- Ruggles, Steven (1997), "The Rise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1880-1990," *Demography* 34(4):455-466.
- Shyrock, H.S., J.S. Siegel and Associates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New York: Academic Press.
- South, S.J. and G. Spitzé (1986),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Aug.):583-90.
-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24.

abstract

The Trends and Meanings of Divorce Rates in Korea, 1970~1995

Kyung Ae Park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been known to increase divorce rates through the enhancement of emotional function of family, the weakness of extended familial network, the sepa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crease of educational level for women, increase of labor participation rate for women, and the pursuit of egalitarian relationship for the couple. Divorce rates by sex, age, province and education in Korea for the period 1970~1995 were examined using the data of marriage and divorce registration and population census. Crude divorce rates, sex-age-specific divorce rates and sex-age-adjusted divorce rates were calculated for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married population respectively,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divorce indicators were discussed. During 1970~1995, divorce rates increased three times, and divorce rate in 1995 was 3.5 per 1,000 married persons. Divorce rate was highest for those under 25 years old, and it was increasing rapidly for all ages, with the most rapid increase for the middle-aged. The relative divorce increase rate was highest for females than males. Divorce rates were highest for Seoul, Pusan, Inchon, Taejon, Kyonggi, and Jeju, and for aged 25~34 years of Chonbuk and Kangwon. Divorce rate was highest for the male elementary-school graduates and lowest for the male college graduates, it was highest for the female high-school graduates and lowest for the female uneducated.

Key Words : sex-specific divorce rates, age-specific divorce rates, divorce rates by education level, divorce rates by province, divorce rates for married persons